

## 해설, 예시답안, 평가 기준

### ■ 문항 1

#### 1. 출제 의도

이 문항은 글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과 이론을 적용하여 현실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능력, 그리고 글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글의 독해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요지파악 능력이다. 또한 현실 문제를 심도 있게 분석하기 위한 개념 및 일반론의 이해와 응용,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설득력 있는 글의 작성은 논술에서 요구되는 기본 활동이다. 이러한 독해와 분석 및 응용, 그리고 작문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 이 문항이다.

먼저 [문항 1 - 가]에서는 장문의 내용을 제시하여 글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그 핵심 논지를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도록 하였다. [문항 1 - 나]에서는 주제에 접근하는 데에 필요한 개괄적인 지식을 제공하여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데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례를 상세한 정보와 함께 제공하여 배경지식을 많이 동원하지 않고도 자신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전개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교과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누구든지 문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계사』, 『독서와 문법』, 『도덕』 등 교과서와 시사적인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는 문제를 이번 문항의 주제로 삼았다. 대개 교과서와 사회에서 자주 거론되어 수험생들에게 익숙하지만, 또 우리사회의 실제적인 갈등과도 연관이 있는 문제를 보다 깊이 사고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시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2. 제시문 해설

제시문 (가)는 기억이 지닌 구성적 기능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기억의 구성적 기능이 인간의 개인적 삶과 사회에서 직면하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지만 그러한 보호기능이 과도해 질 경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제시문은 ‘갈등 해결 역할’과 ‘갈등 조장 역할’에 공히 전제가 되는 기억의 한 속성을 말해 주고 있으며 기억의 작용의 양면성을 통해 <다음>에서 제시한 두 가지 역할을 지지할 수 있는 근거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역사의 주관성과 의도적 조작 가능성이 지닌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프랑스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나 필리핀 막탄 섬에 세워진 마젤란 및 라푸 라푸 기념비를 통해 역사적 기억 만들기가 지니고 있는 특정한 시각과 편향성을 보여주고 있어 ‘갈등 조장 역할’을 지지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필리핀의 경우 식민지 경험과 역사를 재서술함으로써 잘못된 기억을 바로 잡고 나아가 집단적 피억압심리를 해소하는 긍정적 역할로 이해할 수 있다.

제시문 (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적극적인 규명과 기억의 회복 및 재구성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적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이 제시문은 기본적으로 ‘갈등 해결 역할’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조사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내의 반발과 비판을 통해 그러한 노력에 한계가 있으며 또 다른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갈등 조장 역할’을 지지하는 반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제시문 (라)는 사회가 개방화, 다원화, 세계화됨에 따라 사회적 차별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한 차별의식은 장기적으로 편향된 기억이 축적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본 제시문은 ‘갈등 조장 역할’을

지지하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그러나 그 해결방식으로 과거의 잠재기억을 적극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은 차별과 편견이 없는 미래사회를 위한 과거 기억의 교정과 새로운 기억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어 인류역사 발전과정에서 ‘갈등 해소 역할’을 수행한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반증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대학살에 대한 독일정부의 지속적인 반성과 기념관이나 기억을 위한 활동을 통해 과거의 비극적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설명해 주고 있다. 또 과거에 대한 공동의 추체험과 역할놀이를 통해 역사적 비극과 갈등을 보편적인 공동의 역사기억으로 바꿈으로써 상처의 치유와 화해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따라서 본 제시문은 ‘갈등 해결 역할’을 지지하는 근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전 세대의 후대에까지 지나치게 전가하여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반증의 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 3. 논제 해설 및 예시 답안

#### [문항 1 - 가]

제시문 (가)의 내용을 300±50자의 범위 내에서 요약하는 논제이다. 제시문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된다. 다음과 같은 답안이 가능하다.

기억은 과거를 사실 그대로 재현하지 않고 그것을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낯선 것을 익숙한 것으로 만들어 자기의 힘을 고양시키려는 욕망의 소산이다. 물론 이 행위는 사실을 왜곡할 염려가 없지 않지만, 결국 삶의 안정과 유지에 도움이 된다. 한편 고통스런 상황일수록 기억 활동은 더욱 활발해진다. 이는 고통을 잘 기억함으로써 계속되는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를 보존하려는 행위이다. 고통과 기억 활동이 지나칠 때 정신적 불안과 장애가 초래된다. 이 트라우마 증상은 개인을 넘어 사회적 현상으로 발현하는 경우도 적잖은 까닭에 더욱 문제적이다. (311자)

#### [문항 1 - 나]

<제시문>을 참고하여 <다음>에 제시된, ‘과거의 기억이 인류사회의 갈등 해결에 기여한다’와 ‘과거의 기억이 인류사회의 갈등을 조장한다’ 중 한쪽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글을 작성하는 논제이다. 두 생각 중 하나를 택하고 왜 그 쪽을 선택했는지를 (가)의 제시문은 물론, (나)-(마) 제시문에서도 두 가지 이상의 논거를 들어 설명하되, 예상되는 반대 의견을 쓰고 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답안이 가능하다.

\* <갈등 해결 역할>을 선택한 경우:

과거에 대한 기억은 인류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 기억은 적극적인 재구성 방식을 통해 개인이 처한 조건을 개선하는 것처럼, 사회적 억압과 갈등을 해결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진실과 화해 위원회’의 활동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현재 겪고 있는 갈등의 기원을 찾아가는 작업으로, 갈등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 나아가, 가해자에게는 반성과 사과의 기회를, 피해자에게는 복권과 보상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분열을 해소할 수 있다.

(마)에서의 독일의 노력은 적극적인 기억 활동의 갈등 조절 및 해소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독일정부의 지속적인 사과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더불어 여전히 발생 중인 인류사회의 각종 폭력과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현명한 대처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환기시켜 준다. 또 ‘트리덴 랠리’를 통한 과거 상황의 체험은 독일, 폴란드, 프랑스 청년들이 사실을 바탕으로 공동의 역사기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이 함께 유럽인이라는 공동의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였다.

일부에서는 과거에 대한 기억이 권력에 의해 조작되어 국가 및 민족 간, 혹은 각 사회집단 간의 갈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과거를 잊고 미래를 생각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기억의 구성적 속성을 인식하고 왜곡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기억 활동이야말로 인류사회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 수 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편향적인 사고를 교정하여 타민족에 대한 적대감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완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띄어쓰기 포함, 806자)

\* <갈등 조장 역할>을 선택한 경우:

과거에 대한 기억은 인류사회의 갈등을 조장한다. 기억 활동은 과거 사실을 그대로 꺼내는 대신 그것을 주관적인 방식으로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역사적 기록에서 기억은 의도적으로 재구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특정 권력층이나 민족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높다. 필리핀을 점령했던 스페인이나 미국이 자신들의 일방적인 관점에서 마젤란에 대한 비석을 세운 것이나 자국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알자스-로렌 지역의 현실을 왜곡한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이 그 예이다.

의도적인 왜곡이 아니더라도 기억은 인류사회의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데,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바로 그들에 대한 주류의 집단적 무의식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의 자기 보존적 특성 때문에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상대에 대해 사실과 달리 부정적인 기억을 갖게 된다. 이것이 시간적으로 축적되며 집단적으로 공유될 때 소수자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은 차별은 공적, 사적 관계에서 공히 발생하여 주류와 소수자 사이의 갈등을 일으킨다.

물론, 독일이 과거를 반성하고 끊임없이 과거의 기억을 되살림으로써 주변 국가와의 화해에 이른 것처럼 과거에 대한 기억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은가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역사적 기억 역시 기억의 구성적 능력을 고려한다면 진실을 담고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 또한 역사적 진실 규명 과정에서 남아공의 사례처럼 새롭게 구성된 기억에 동의하지 못하는 자들이나 예기치 못한 피해자들이 생겨난다면 오히려 그 사회에서 갈등과 다툼이 거듭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띄어쓰기 포함, 810자)

※ 제시문 활용의 예

\* <갈등 해결 역할> 선택을 지지하는 논거:

(가)

- 기억은 과거 경험의 단순한 재현을 넘어 그것을 재구성하는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특징을 지닌다.
- 과거의 기억은 구성적 기능을 통해 사실과 기대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거나 현재의 조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한다.
- 고통에 대한 기억은 유기체의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 기억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반복될 때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연습시켜 자신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

(다)

- 적극적인 역사에 대한 기억을 통해 진실규명과 상처치유를 통해 화합을 유도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악몽에서 벗어남)
- 역사에 대한 공동의 기억을 만들 때 인류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마)

- 고통스럽더라도 과거를 적극적으로 기억하여(기념관 설립 등), 동일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다.
- 과거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을 통해 화해가 가능하다.  
(독일의 정부 수반의 반복적인 사과, ‘기억, 책임 그리고 미래재단’의 사례)
- 과거에 대한 기억의 교류와 공유를 통해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형성에 도움이 된다.  
(트리넴 렐리의 경우)

\* <갈등 조장 역할> 선택을 지지하는 논거:

(가)

- 기억은 사실을 왜곡하여 구성하기도 한다.
- 기억의 자기보존 활동이 지나치면 트라우마가 형성되는 등 오히려 삶을 파괴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 집단적 기억(트라우마)에 의한 사회적 장애와 같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나)

- 국가나 권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과거의 사실을 조작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 역사기록에서 승리자의 기억이 지배적인 기억이 되는 경우가 흔히 보인다.  
(마젤란을 둘러싼 스페인, 미국의 사례 )
- 자기 중심적 역사서술이나 주장은 타자와의 갈등의 원인이 되거나 더 조장하기도 한다.  
(알자스-로렌 및 필리핀의 경우)

(라)

- 장기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해 축적된 기억이나 집단적 무의식이 고정관념과 편견을 낳기도 한다.
- 과거의 기억에 기반한 차별의식은 심각한 심리적 폭력적 문제이다.
- 소수자를 비롯한 타자와의 관계는 현재의 실제 모습을 정확히 인식, 체험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함.

4. 평가 기준

[문항 1 - 가]

(1) [기본 조건 충족]

- 다음 5개의 핵심내용이 들어 있어야 함.

■ 기억의 속성-사실의 재현을 넘어선 재구성의 경향
■ 기억의 재구성의 의미-자기 힘의 고양, 사실의 왜곡
■ 고통과 기억 활동의 연관성과 그 효과 - 위기 대처 능력 제고 및 자기보존 행위
■ 고통과 기억 활동의 과잉-정신적 불안과 장애(트라우마)
■ 집단적 트라우마의 위험성

(2) [논리성]

- 제시문의 논지를 고려하여(제시문의 내용 왜곡이나 제시문 이외의 내용 추가 없을 것) 분량 배분을 잘 하고, 문장의 연결(접속사, 지시어 등 포함), 논리적 전개가 매끄럽고 요약문 자체가 하나의 완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함.

(3) [형식 요소]

- 제시문의 문장을 원래의 문장 형태 거의 그대로 가지고 오지 말아야 함.
- 논평식 서술(예: “제시문 (가)는 …라고 하고 있다.”)을 하지 말아야 함.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규범을 지키고 어휘나 문장이 정확해야 함.
- 제시된 분량을 지켜야 함.

[문항 1 - 나]

- 논술문의 기본 요건인 명확한 견해, 일관된 주장, 설득력 있는 근거, 논리적 체계가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임.

(1) [기본 조건 충족]

-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문제의 논점(<다음>에서 제시한 두 가지 선택사항의 핵심적인 의미)을 정확히 파악함.
  - 제시문 (가)에 설명된 기억의 속성을 논거로 활용하여 서술함.
  - 제시문 (나)-(마)에서 2개 이상의 논거를 활용하여 서술함.
  - 예상되는 반대 의견(반박)을 쓰고 그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재반박) 내용을 포함함.  
(반박과 재반박은 글의 어느 위치에 있어도 상관없고 제시문을 활용하지 않아도 됨.)

(2) [논리성]

-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더 좋음.
  - <제시문>에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서술함.
  - 반대 의견(반박)과 그에 대한 재반박이 논리적으로 잘 연결되고 설득력이 있음.
  - 글 전체가 선택한 입장을 중심으로 일관성이 유지됨.
  - 문장 구성, 문장의 연결, 논리적 전개가 탁월함(제시문 (가)에서 설명된 기억의 속성이 다른 제시문을 활용한 논거와 잘 연결된 경우 포함).

(3) [형식 요소]

- 자신의 선택을 첫 문장에서 밝혀야 하고 한쪽만 선택해야 함.
- 쓸데없는 서론 혹은 결론을 붙이지 말아야 함.
- 제시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원래의 완전한 문장 형태를 유지한 채 그대로 옮겨 적지 않아야 함.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등의 규범을 지키고 어휘나 문장이 정확해야 함.
- 제시된 분량을 지켜야 함.

5. 제시문 출전

- (가):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I』(비상교육, 149-155쪽) 및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출제위원이 작성.
- (나): 고등학교 『세계사』(더텍스트, 166쪽)에서 발췌, 수정.
- (다): 고등학교 『세계사』(교학사, 321쪽)에서 발췌, 수정.
- (라): 고등학교 『사회·문화』(교학사, 167-168쪽)에서 발췌, 수정.
- (마): 고등학교 『도덕』(천재교육(박찬구 외), 171쪽)에서 발췌, 수정.

## ■ 문항 2

### 1. 출제 의도

[문항 2]는 제시된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자료에 나타난 사회현상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측정하고자 출제하였다. 여성 1명이 가임 기간(15~49세) 동안 낳는 평균 자녀 수를 일컫는 합계출산율이 1.2 미만인 우리나라는 이미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핵심 가임기 연령인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를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려는 일부 시각에 대해 자료 분석을 통해 해석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하였는지를 점검하고자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를 선정하고 사회·문화 교과서를 인용·활용하였다.

### 2. 논제 및 자료 해설

논제는 주어진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라는 단정적인 주장을 반박하고 더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 논제에 답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어진 자료 가운데에서 문제 해결에 적합한 자료를 골라내야 한다. 다음으로 골라낸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주장에 대한 반박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된다.

자료 (가)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 추세를 나타낸다. 자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거의 매년 꾸준히 증가('02~'03, '08~'09 제외)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증가와 감소가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 밀줄 친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자료 (나)는 20대 남녀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를 보여준다. 20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2년 이후 남성을 앞지르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단순히 경제활동참가율, 그것도 20대만을 보여주고 있어 (나)를 반박 근거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자료 (다)는 결혼 적령기 남녀 인구 추이를 나타낸다. 자료에서는 결혼 적령기에 있는 남녀가 모두 199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감소세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이어질 수는 있지만,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하는지를 보여주는 출산율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밀줄 친 주장을 반박 혹은 지지하기에 불충분하다.

자료 (라)는 남녀 연령대별 불임 현황을 보여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 연령대의 남성, 그리고 30세 이상의 여성에서 불임이 증가하고 있다. 여성 불임이 20대에서는 감소하더라도 30세 이상 연령대를 주시하고, 동시에 남성 불임 증가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불임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밀줄 친 주장을 **반박**할 수 있으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불임 치료 지원 확대**를 제안할 수 있다.

자료 (마)는 소득 계층 및 여성 취업 여부에 따른 평균출생아 수 변화를 나타낸다. (마)에서는 **두 가지 반박** 자료를 찾아낼 수 있다. 첫째, 연도별 자료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에서는 오히려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 평균 출생아 수가 더 많아 <다음>의 주장과 상반된다. 취업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가 더 적은 것은 고소득층만의 현상이다. 둘째, 모든 연도에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평균 출생아수가 적으므로 소득을 출산율 저하의 또 다른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저소득층은 비취업 여성이, 고소득층은 취업 여성이 각각 평균 출생아 수가 적기 때문에 각 소

특 계층별로 출산율 제고 방안을 다르게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저소득층은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둘째 고소득층은 취업 상태에서도 출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양육 지원 등을 출산율 제고 방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자료 (바)는 교육비 절감 시 출산 의향 변화를 나타낸다. 이 자료에 따르면 모든 항목에서 교육비가 절감된다면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의 비율은 증가한다. 따라서 교육비가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밑줄 친 주장을 반박할 수 있으며,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출산율 제고방안으로 제안할 수 있다.

### 3. 예시 답안

출산율 저하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첫째, (가)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출산율은 증가와 감소가 일정하지 않다. 둘째, (라)에서 불임 증가도 또 다른 원인이다. 남성은 전 연령대, 여성은 30세 이상에서 불임이 증가하여 비록 20대 여성의 불임이 감소했다라도 전체 불임은 증가한다. 셋째, (마)에서 취업과 비취업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를 비교하면, 저소득층은 각 연도마다 취업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가 더 많다. 또한 각 연도마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평균 출생아 수가 적으므로 소득 역시 출산율 저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바)를 보면 교육비 부담 감소 시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비율이 모든 교육비 항목에서 증가하므로 교육비 부담을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첫째, (라)에 근거하여 불임 치료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들 수 있다. 둘째, (마)를 참고하여 저소득층에게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고소득층에게는 취업 상태에서도 출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양육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바)에 따라 교육비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띄어쓰기 포함, 602자)

### 4. 평가 기준

#### (1) [핵심 내용]

- 반박의 근거로 자료 (가), (라), (마), (바)를 선택하고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함.

자료	핵심 내용 (채점 포인트)
가	① (일정시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변화 패턴을 고려하여) 매년 거의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출산율은 증가와 감소가 일정하지 않음을 제시함.
라	② 불임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지적함. 불임이 20대 여성에서 감소하지만 남성의 전 연령대와 30세 이후 여성에서는 증가하므로, 증가가 월등히 많아 감소분을 상쇄하고 전체적으로 증가한다는 사실을 언급함.
마	③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보다 평균 출생아 수가 더 많음을 지적함. ④ 각 연도마다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평균 출생아수가 적으므로, 소득도 출산율 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함.
바	⑤ 출산의향이 있는 응답자 수 혹은 비율이 교육비 감소 시 증가함을 지적함.

- 출산을 제고방안으로는 (라), (마), (바)를 선택하고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함.

자료	핵심 내용 (채점 포인트)
라	① 불임 치료 지원 확대를 제시함.
마	② 저소득층에는 취업 기회를 확대, 고소득층에는 취업 상태에서도 출산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양육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서술함.
바	③ 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적함.

(2) [논리성]

- 자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자료와 주장 사이를 설득력 있게 연결함.
  - 개념을 정확하게 사용하며 글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함.
- 가.

(3) [기본 조건]

- 자료를 언급해야 하고 적합한 자료에 근거해야 함.
- 제시된 분량을 준수해야 함.

(4) [형식 요건]

- 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어휘와 문장의 정확성과 명료성 등 한글 답안의 형식적 요건들을 충족해야 함. 또 단위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함.

5. 자료 출전

<다음>: 고등학교 <사회·문화>(천재교육) VI. 현대 사회와 사회 변동, p.226에서 발췌, 수정

(가): 통계청

(나): 통계청

(다): 통계청

(라): 『퀵슈머타임즈』

(마): 통계청

(바): 한국보건사회연구원